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속의 다문화주의

JTBC <비정상회담>의 ‘기미가요’ 논란을 통해 본 다문화주의 담론의 취약성 연구*

김태영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과정**

윤태진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한국 텔레비전은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다문화주의 담론을 이식, 재현, 소비하는 매개로 기능해 왔다.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를 내세우며 외국인들을 출연시켰고, 여론의 호응 속에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JTBC의 <비정상회담>에 삽입된 ‘기미가요’에 관한 논란 속에서 미디어가 재현/구성하는 다문화주의 담론에 반일, 민족, 국가, 평화 등 다양한 개념이 개입할 때 어떤 담론 구조적 변화를 겪는지 보고자 했다. 즉, 일견 지배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이던 담론이 실은 대항 담론들과 지속적인 경쟁과 갈등을 일으키며, 그 결과 하나의 돌발적 사건으로 인해 그 취약성이 드러날 수 있음을 제시하려 했다. <비정상회담>의 시청자 게시판을 중심으로 하되 언론 보도, 제도화 과정 등을 보조적 분석 대상으로 삼아 진행한 비판적 담론 분석(CDA)의 결과, <비정상회담>이 표방해 온 다문화주의에 반일 정서가 개입하면서 다문화 담론에는 심각한 균열이 왔음을 확인하였다. 시청자들은 대개 민족주의를 높은 위계에 설정하면서 세계화에 대한 공격, 역사/민족의 강조, 한일관계라는 특수성의 보편화, 즐거움의 의의 축소 등 다양한 논리를 동원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다문화 담론에 상처를 입히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 의제가 되면서 광고 협찬의 중단, 공적 심의제도의 동조 확인 등으로 이어졌다. ‘기미가요’ 사건은 다문화주의가 언제라도 쉽게 공격용 허수아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 주었다. 한국에서의 다문화 담론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기보다, ‘본질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비정상회담>, 다문화주의, 담론 경쟁, 비판적 담론 분석, 반일 정서, 반일 민족주의

* 이 논문은 2015년 연세대학교 미래선도연구사업의 (부분적인)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2015-22-0150).

** taeykim@yonsei.ac.kr, 주저자

*** gopher@yonsei.ac.kr, 교신저자

1. 들어가며: 미디어와 다문화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수가 2015년 기준 170만 명을 넘어선 상황¹⁾에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는 생경함을 넘어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담론으로 자리매김했다.²⁾ 다양한 민족적 성향을 가진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은 공존과 통합, 그리고 혼종적 문화의 창출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한국 사회에 제시하고 있다.

한국처럼 전통적으로 외국계 이주민들과의 일상적 접촉이 흔하지 않았던 사회에서 미디어는 다문화주의 담론을 이식하고 생산하는 핵심 주체임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형성에 강력한 기제로 작동한다(이인희·황경아, 2013). 우리나라의 각종 대중매체³⁾들은 세계화와 다문화사회를 내세우며 외국인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을 대거 방송하고 있다. 과거에도 외국인들이 출연했던 포맷의 프로그램들이 간헐적으로 존재했지만, 최근 제작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경우 과거에 비해 이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단순히 한국 사회를 체험하거나 타향살이에 대한 애환을 풀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단면들에 대해 이주민들만의 고유한 관점에서 입장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참여와 역할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출연진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민족적 구성 등을 감안했을 때 한국에 거주하는 다수의 외국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곤 한다. 인기를 모았던 예능 프로그램인 <미녀들의 수다>나 <비정상회담>의 경우, 출연자들의 국적과 인종은 실제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 외국인의 구성비와는 차이가 크고, 직업도 모델이나 학생 같은 경우가 많아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들이 다수를 이루는 한국 거주 외국인 및 외국계 한국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도 불일치하며, 무엇보다도 출연진 다수가 백인으로 다문화 사회를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성을 제대로 재현하지 못한다는 비판들이 제기될 수 있다.⁴⁾ 물론 텔레비전 프로그

1)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5년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174만 1919명으로 전체 주민 등록 인구의 3.4%이다(2015년 7월 5일자 <조선일보> 참조).

2) 양적 증가뿐 아니라 실제 정치사회적 영향력도 신장되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필리핀 출신의 이주여성 이자스민 씨가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귀화 후 한국 경찰로 활동 중인 이주자 수도 2015년 현재 18명에 이른다(2015년 9월 24일자 <연합뉴스> 기사 “외국어 전문 요원으로 활약. 귀화 경찰관 전국에 18명” 참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4/0200000000AKR20150924106700004.html>.

3) 본 논문에서는 ‘미디어’, ‘매체’, ‘대중매체’를 특별한 의미 구분 없이 사용한다. ‘텔레비전’을 지칭하기 위하여 ‘매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별도의 의미 부여가 필요한 경우, 본문에 그 내용을 밝힐 것이다.

램이 현실적 인구 비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당위적이거나 용이한 일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예능오락 장르의 경우 현실의 특정 부분을 과대 묘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용인된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텔레비전의 매체적 특성이나 예능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과 무관하게, 텔레비전 속 외국인이 모습이 한국 사회 현실 속 외국인의 모습과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미디어의 다문화 재현’과 ‘대중들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인식’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규정하거나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대중매체, 특히 예능오락 프로그램들의 경우 (타깃)시청자 다수의 문화와 정서를 일부 반영하기도, 또 주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담론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모은 현실적 계기로 한국계 미국인인 하인즈 워드 주니어(Hines Ward, Jr.)의 2006년 방한을 꼽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정의철 · 이창호, 2007; 윤인진, 2014). 미국 전미풋볼리그(NFL) 결승전인 슈퍼볼의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워드 주니어가 방한한 후 이어진 일련의 미디어 이벤트와 후속 논란들이 평범한 시민이자 텔레비전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 해석은 대체로 옳지만, 사실 이미 2005년부터 정부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한국의 장래 발전의 한 주요 모습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을 펼쳤고(김영명, 2013, 143쪽), 텔레비전들도 2000년 전후부터 간헐적으로나마 재한 외국인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조망하는 기획 프로그램들을 방영한 바 있었다. 2009년 1월 22일에는 정부 산하 국가 브랜드위원회가 ‘우선 추진할 10대 실천 과제’의 두 번째로 ‘따뜻한 다문화 사회 만들기’를 제시한 바 있었다. 이후 한국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2010년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준하면서 다문화주의는 정책적으로도 관심을 받게 된다.⁵⁾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 현상의 재현, 다문화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정부의 다문화 관련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다문화 담론의 줄기를 만들어 왔다.

10여 년의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라는 단어가 가진 일상적 함의는 매우 다양하게 드러난다.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적 개념으로서의 ‘다문화주의’ 역시 통일된 정의와 용례가 있다기보다는 학자에 따라 특정 국면이 강조되거나 편의적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어지는 장에서 소개하겠으나, 그에 앞서 “다

4) 위(각주 1번)와 같은 자료에 따르면, 재한 외국인 중 아시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출신 외국인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5)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은 2005년에 체결되었지만, 한국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 등의 무역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문화 및 서비스산업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으로 논란을 빚어 비준이 지연되었다.

문화주의와 다문화 정책이 우리 사회에서 유의미한 도전을 거의 받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용승 2011, 133쪽)도 있다는 점을 미리 지적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그 자체가 매우 논쟁적인 개념이자 실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사회에는 거의 반대하기 어려운 이념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다문화’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개념으로 간주되면서 반(反)다문화 논의가 활발해질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이 지적은 과연 정당한가? 담론 간의 경쟁이 늘 그러하듯, 직접적인 반론이나 반박이 쉽게 허용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다른 방식의 ‘의미’를 사이에 둔 투쟁⁶⁾이 일어난다. 경제적 논리가 전면에 등장하거나 민족/전통의 개념이 개입하여 ‘다문화’ 담론을 공격한다. 즉, 반(反)다문화 담론이나 비(非)다문화 담론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다문화 담론과 경쟁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⁶⁾에서 보듯,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담론이 도전 불가 수준으로 정착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 평가로 보이지 않는다.

다문화 담론의 취약성은 다문화적 시선들을 반영한 대중매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제기된다. 2014년 10월 27일 방송된 <비정상회담> 17회에서 제작진은 새로운 일본인 패널로 등장한 다케다 히로미츠(武田 裕光)를 환영하기 위해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君が代)’를 배경 음악으로 삽입했고, 이는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한국 방송 매체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 중 하나인 기미가요를 방송했다며 분노하는 글이 끝없이 이어졌고, 국내의 다수 언론들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결국 제작진은 <비정상회담> 책임프로듀서 겸 연출자를 보직 해임하고, 기미가요를 채택한 프리랜서 음악감독과 해당 프로그램 관련 업무 계약을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문화’를 표방하여 인기를 모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반일 정서’라는 뜻밖의 변수를 만나 위기에 처한 사례이다. 흥미로운 점은, 시공간을 넘나드는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다문화 담론과 특정 역사와 지정학적 맥락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반일·민족 담론은 같은 논리적 장 안에서 작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모순적이고 경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4년 12월 11일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

6) 2014년 11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인터넷 커뮤니티인 <오늘의유머>에는 이 법이 불법체류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비난하는 글들이 대거 올라왔다. 엉뚱하게도 발의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이자스민 의원(필리핀계 한국인)의 이름을 붙여 ‘이자스민법’이라 불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체류자가 폭증하고, 국민들의 복지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 주요 주장이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외국인을 위한 법안을 만들려는 ‘이민자’로 마녀사냥을 당했고, 오히려 이주 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윤형(2014)은 이에 대해 한국 사회의 시민주의 상식 수준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 문제를 성찰하고 공론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한 국민의 역사 인식과 정서를 배려하지 않고 일본의 기미가요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해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시켰다”는 점을 근거로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림으로써, 이 담론 갈등은 정책적 결정으로 이어졌다. 즉, <비정상회담>의 ‘기미가요’ 논란은 다문화 담론과 그에 대한 대항 담론의 갈등을 보여 준 중요한 사례인 동시에 다문화 현상의 재현, 다문화에 대한 긍/부정적 인식, 다문화 관련 정책들이 접합된 전형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회담> 17회에서 방영된 기미가요에 대해 쏟아진 인터넷 상의 비난 및 비판들을 분석하여 미디어가 구성하는 다문화 담론에 대항하는 담론이 어떤 식으로 표출되고 이것이 다문화 담론을 위협하는 양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어지는 장에서는 다문화 및 다문화주의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함께 서구 담론인 다문화(주의)가 한국에 유입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3장에서는 연구문제와 대상, 분석 방법 등을 소개하고, 4장에서는 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SNS에서 큰 호응을 얻은 일반인들의 댓글 분석을 통해 <비정상회담>에 대해 쏟아진 비판들에 숨겨진 담론적 구조들, 즉 담론들 간의 경쟁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 그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서술할 예정이다.

2. 다문화 담론과 반(反)다문화 담론

1)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홉스봄(Hobsbawm, 1983)은 ‘민족’을 근대에 들어와 구축된 역사적 혁신(historical innovation)이자, 인위적으로 발명된 요소들을 포함하여 생성된 유사공동체(pseudo-community)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홉스봄의 논의대로 정의할 경우, ‘민족’은 지배계급의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김인중, 2014). 그래서 겔너(Gellner, 1983)와 앤더슨(Anderson, 1983)의 주장을 반영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민족이란 개념이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근대에서 형성되었다는 인식은 홉스봄과 같지만, 이들은 민족 구성원들이 조형물(artifact) 등을 통해 신화나 민속 풍습 등 일정한 역사적 맥락을 공유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족주의는 일차적으로 인위적 요소들이 포함된 ‘민족’이란 합성체에 대해 구성원들이 가지는 소속감과 애착을 일컬을 뿐만 아니라, 근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이러한 애착을 강조하려는 사조와 정치적인 운동을 함께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시대와 공간에 따라 다양한 얼굴로 나타난다. 나치즘의 민족우월주의는 민족주의를 토대로 삼아 게르만 민족이 타 민족, 특히 유대인이나 집시보다 우월하다는 사고와 그 사고의 행동화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일상적 정서에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반일주의 역시 한민족과 일본 민족이라는 상상의 존재를 전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민족주의를 존재의 자양분으로 삼는다. 여행과 같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축구 시합 같은 국가적 차원의 이벤트에서 더 쉽고 강하게 가시화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족주의가 종종 민족우월주의나 민족중심주의로 변질되는 것 역시 민족 간의 우열이 강조된 결과이다. 반면 문화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가 강조될 경우 민족중심주의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문화상대주의는 서구 사회가 비서구 사회에게 보편적 인권 개념의 수용을 요구한 것에 대한 대항적 사조로 등장했다. 특정 집단의 문화가 다른 집단들의 그것들보다 우월하다는 문화절대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문화에 관한 한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문화들은 비교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화상대주의는 서병훈(2011)의 지적대로 기본적으로 문화들의 차이를 비교 및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하는데, 문화상대주의자들은 문화가 공동체 특유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판단하고, 각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들이 구성원들과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리를 따른다면 보편적 가치는 존재하기 어렵게 되는데, 루크(Luke, 2003)는 다른 문화에 대해서 판단하는 시선은 기본적으로 종족 중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성의 확장을 요구했다. 다만 윤혜린(2008)과 이병화(2008)의 지적처럼 상대주의적 시선에서 문화를 조망하는 것이 문화에 대한 판단의 유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윤리적인 맥락에서의 상대주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상대주의와 다문화주의는 내용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유의어나 대체어로 간주할 수는 없다. 다문화주의는 20세기 후반부터 전 지구적으로 전개되어 온 이민에 근간한다. 다문화사회는 단순히 인종, 민족 등의 배경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에 살아가는 사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즉, 보다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에 소속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하위 집단들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향유하고 자신들의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를 의미한다(윤재희·유향선, 2009). 자연스럽게 다문화주의는 이러한 하위 집단들의 정체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대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전환될 수 있다. 다만 다문화주의를 추구하는 사회라고 해도 모든 논의들은 민주적 공동체가 향유하는 시민적 권리와 기본적 인권을 공유하는 전제 위에서 이야기되어야 하나, 그 이면에는 민족주의나 정치경제적 시선과 같은 거대 담론 권력들이 작동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서병훈,

2011; Rattansi, 2011).

오늘날 다문화주의 담론은 민족적,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 소수 계층의 권리 보호와 증진에 관한 모든 논의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다문화주의 담론이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와 본래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아우르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엄밀히 말해 두 개념은 소수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문화적 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 모두 이주민을 포함한 소수 계층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통한 계층 간의 갈등 해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전자의 경우 문화적으로 주된 공동체의 존재가 확인된 가운데 소수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주의(主義)라면, 후자는 문화적 주류와 비주류의 존재를 부정하는 가운데 선주민들의 문화와 이주민들의 문화가 동등하게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장세룡, 2007). 일단 이민이 시작되면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 기제들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다원주의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다문화주의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이어지지만, 이것은 이상적인 전개일 뿐이다(Allievi, 2010).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이민으로 인해 도입된 한국의 다문화 관련 논의들은 이민자들에 대해 동화주의적인 관점에서 다루지는 경우가 많았고, 미디어는 다문화 담론의 전파 매개이자 주체로서 이민자들의 권익에 대해 다루기보다는 동화의 객체로 다루거나 이들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곤 했다.⁷⁾ 이러한 현상들은 서구에서도 과거 이민자들에 대해 취해 왔던 것과 유사한 지점이 있는데, 김수경(Kim, 2012)은 이민 및 다문화 문제와 관련하여 미디어가 감시의 기능보다는 지배 엘리트의 관점을 철저하게 투사하는 ‘시종(servant)’으로 기능한다고 지적한다.

2) 현실 속 다문화주의의 등장과 발전

기본적으로 문화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차원에서 기능하는 실천과 의미들의 구성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근대 이후의 국민국가에서의 문화란 지역, 계층, 종교, 민족별로 다른 문화적 다양성을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Barker, 2004). 이 과정에서 국민성이 태동되고 다수를 이루는 주류 공동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문화는 국가 정체성을 위시하여 문학, 대중문화, 미디어 등을 통해서 그 역할을 유지하고 확대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동체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동화 정책을 시행하여 주류로

7) 예를 들어 김인영·박관영·이인희(2009)는 KBS의 <러브 인 아시아>와 <미녀들의 수다>가 애초의 기획 의도와는 달리 한국적 다문화주의가 갖는 이중적 잣대를 고착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의 통합 내지 공동체 안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Kymlicka, 1995).

본래 '다문화'란 개념은 1970년대 영국과 미국, 캐나다와 호주처럼 이민으로 인해 하나의 국가(nation) 안에서 각기 다른 문화들을 공유하는 인종, 민족들이 공존하는 공동체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이인희·황경아, 2013). 선주민들이 이주민들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인 썸인데, 근대 이후 서구 사회에서 정치적 경계가 획정되면서 각국 정부들은 경계 안에서 언어와 문화유산, 역사 등을 교육시키면서 문화적인 경계를 일치시킴으로써 국가를 확립했다. 자연스럽게 다수 구성원들이 향유하는 언어 공동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가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고, 이 과정에서 배제된 변방의 주민들과 이주민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동화(同化)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Kim, 2012). 그러나 이상길·안지현(2007)의 설명대로 1960년대 이후 민권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주민과 소수민족의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다문화주의 담론은 실천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게 되었다. 여기에 탈근대주의와 탈식민주의에 대한 논의들이 본격화되고 아파두라이(Appadurai, 1996)가 지적한 것처럼 세계화로 인해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의 정보 및 인적 교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가 내의 문화적 다양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이민까지 확대되면서, 더 이상 호주의 '백호주의(White Australia policy)'로 대표되는 동화주의적 접근법만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심지어 이로 인한 정치적인 변화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오늘날 다민족 국가들에서는 국가 정책에서도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표방하며 구성원들이 향유하는 다양한 문화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 미국의 소수집단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도 그 결과물이며, 학교에서 다양한 언어들이 법정 공용어와 함께 교육되고 각 민족 구성원들의 축제들이 장려되는 것 등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마르티니엘로(Martiniello, 1997)가 지적한 대로, 다문화주의는 정치철학적으로도 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와 정체성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공적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다문화적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지만, 문화적 다양성은 오늘날 국가를 넘어 보편적인 국제 질서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이주민의 문화적 표현들이 내국인의 문화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제 문화상대주의적 다원성에 기초한 다문화주의가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게 되고 진보성이 내재된 문화적 진화보다는 수평적인 다문화 수용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Bauman, 2011).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다문화주의는 서유럽권을 중심으로 위기를 맞게 된다. 이주민

들이 자신들만의 소공동체를 만들어 선주민들과 융합되지 못한다는 비판은 진작부터 있었으며, 특히 경제 불황이 심화되면서 이주민들이 국가나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없이 복지 혜택만 누린다는 비판이 반(反)다문화주의를 강화시켰다(Back, Shukra & Solomos, 2002; Koopmans, Statham, Giugni & Passy, 2005). 사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은 강약의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파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가령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다문화주의로 인해 전통적으로 사회 공동체를 통합한 국가 고유의 정신이나 전통이 훼손된다고 비판한다.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초국적 자본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원성 원칙에 근간한 다문화주의는 결국 헐리우드로 대표되는 미국 자본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반발한다. 이 밖에도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 대해 보편적 가치가 결여된다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Barker, 2004; 이상길·안지현, 2007; 윤인진, 2014).

3) 한국의 다문화/반(反)다문화 담론

한국에서 다문화주의가 등장하거나 반발에 부딪힌 과정은 서부 유럽의 그것과 다소 달랐다.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영토적 귀속성, 순혈주의, 그리고 단일 언어라는 원칙 속에서 구성된 '한국'이란 통합된 정체성이 사회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단일 민족 신화로 오랫동안 표상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력 부족과 이주 결혼이라는 두 가지 사회경제적 기제와 맞물려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나 대책 마련도 없었던 상태에서 이주자들을 맞이하게 되었다(김현미, 2014). 이 과정에서 경계는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었고, 재한 외국인들은 국적이 한국이거나 장기간 이웃으로 거주했어도 공동체의 논의 과정에서 객체가 되고 타자로 인식된 경향이 있다. 이처럼 경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다문화' 담론은 이민자들과 선주민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상호 존중과 융합의 맥락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이들이 구성한 이른바 '다문화 가정'들에 대한 담론들로 국한되는 경향을 띄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주자들에게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인권, 노동권, 문화 다양성에 대한 권리보다는 외교 관계나 대외 이미지에 초점을 맞춰 '관리하는 대상'으로서의 입장에서 다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각종 대중매체들은 이주민들을 '타지에서 겪어야 하는 애환과 설움 등을 드러내어 감정적으로 소비되는 우리 주변의 타자'의 이미지로 재현하였다. 예를 들어 김혜순(2008)은 국내 거주 외국인, 특히 동남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온정적, 시혜적 대상화하는 것이 단일민족에 대응되는 '다문화'로 설정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고, 홍지아(2010) 역시 한국의 언론은 결혼이주여성들을 '엄격한 가부장 가치의 실천자'와 '한국인이 베푸는 각종 시혜 정책의 수혜자'로 재현한

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분석한 심훈(2013)과 권금상(2013) 역시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결국 오늘날 한국에서 다문화에 대한 논의는 상당 부분 정부의 '복지 시혜'와 맥을 같이 하고 있고, 동등한 권리 보장과 상호 이해의 측면보다는 피해 구제나 동화 등이 다문화 담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현상에 대한 공적 논의가 지나치게 우호적일 뿐 아니라 인정을 강요하는 일방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김영명(2013)은 한국의 공론장이 다문화 옹호 일색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경제적 이익, 지적 사대주의, '인종주의'의 부정적 함의, 정부의 부처 이기주의⁸⁾, 한국인의 '힙쓸림' 현상 등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이 중 '인종주의자'라는 꼬리표의 힘을 지적한 것은 매우 흥미롭다. '타 민족에 대한 관용'이나 '다문화'가 긍정적인 어감을 이미 확보한 데에 반해 '인종주의'는 극단적인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론 간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반대하더라도 '인종주의'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 두려워 이를 감히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그 예로 든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배후에는 특정 단어의 의미와 정의를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진행 중임을 시사하는 주장이다. 정반대로, 반(反)다문화주의를 주창하는 이들 역시 적극적으로 담론 경쟁에 참여한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다문화에 반대하는 한국의 온라인 집단을 분석한 강진구(2012)는 이들의 반(反)다문화 담론을 개괄할 수 있는 주제를 4개로 요약,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하나가 '민족인데, 다문화주의를 '민족 말살'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⁹⁾ 논리적 설득력보다는 "다문화는 망국의 지름길이요 민족 말살 책동"처럼 다분히 감정적인 논조가 많다는 것이 분석 결과이긴 하지만, 다문화의 반대 개념으로 '인종주의'라는 부정적 함의의 단어 대신 '민족주의'라는 긍정적 단어를 활용하여 지지를 얻고자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2000년대 들어 다문화 담론을 다루는 미디어들에 관한 연구들이 상당수 진행되었다.

8) 김영명(2013)은 여성가족부가 자 부처의 존재 의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문화 정책을 과도하게 밀어붙인다고 주장한다.

9) 나머지 3개는 첫째, 가장 빈번하고 강력하게 제시하는 의제로, 다문화를 '자본의 문제'로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는 자본의 논리에 대한 비판과 직업을 빼앗아 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공격, 그리고 자신들의 세금을 소비하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비판 등으로 나타난다. 둘째, 다문화주의를 '종교적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인데, 이들은 다문화주의가 문화적 상대성이란 이름으로 '명예살인' 등을 부추기고 있는 이슬람을 관용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며 비판한다. 마지막으로 '음모론'은 다문화주의를 민주화 세력의 영구 집권 음모 시나리오의 일환이나 북한의 남한 정복의 전략으로 바라보는 '정치적 음모론'과 기독교 인구의 감소로 위기에 빠진 기독교가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의 하나로 다문화주의를 이용하고 있다는 '종교적 음모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크게 범주화하자면, 미디어가 재현하는 다문화적 사회 구성의 양상을 다룬 연구(오창우·이현주, 2011; 마정미, 2010; 김인영·박관영·이인희, 2009; 홍지아·김훈순, 2010), 다문화 미디어들에 대한 연구(Prey, 2011; 이은비·강진숙, 2013; 정의철, 2011), 그리고 다문화 구성원들의 미디어 접근권에 대한 연구(홍종배·유승관, 2014; 채영길, 2013; 정의철, 2013; 정의철, 2014)들이 있었다. 대체로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다문화성이 현실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나 한국의 주류 미디어들이 순혈주의적 씨족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는 주장, 이주민 제작 미디어들이 선주민들이나 다른 이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 다문화 담론의 당사자들이 주류 미디어들로부터 소외되는 양상의 확인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디어 재현이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이는 주류 공동체 수용자들에게 어떤 인식을 갖게 하고,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강한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가령 이현정·안재용·이상우(2013)는 배양 이론을 이론적 틀로 삼아 한국인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다문화 담론에 근거해 제작된 프로그램들에 노출된 정도가 많은 시청자들일수록 다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개선되었음을 보여 준 바 있다. 다문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임도경·김창숙(2011)의 연구는 백인 선호 경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외국인 범죄에 대한 공포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미디어 재현이나 수용자 인식에 대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선행 연구들이 비교적 경시해 온 담론 간의 경쟁과 갈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수용자 개인들이 ‘비교적 안정적이라 인지하고 있던’ 다문화 담론이 다른 돌발적 쟁점과 부딪혔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발화되고, 이 논쟁이나 발화가 어떻게 다문화 담론을 위협하거나 약화시키는 지, 나아가 담론 경쟁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연구 문제와 연구 절차

1) 연구 문제의 설정

이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다문화 담론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과 균열의 가능성이다.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과연 다문화 담론의 구조는 어떤 방식으로 변형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비정상회담〉에서 불거진 기미가요 논란에 대한 수용자들의 반응을 들여다 볼 것이다. 하나의 사건을 통해 전체 구조를 추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사례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연구

문제를 던짐으로써 연구 목적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비정상회담〉의 다문화 담론과 한국적 특수성이 충돌했을 때 표출되는 ‘대항 담론’들은 무엇이며, 이들은 다문화 담론과 어떤 방식으로 경쟁하는가?

연구문제 2: 〈비정상회담〉을 매개로 한 담론 간의 갈등과 경쟁을 통해,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담론 지형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두 연구문제에 답을 하기에 앞서, 우선 〈비정상회담〉의 기획 의도와 구성을 통해 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의 다문화 담론의 구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할 것이다. 즉, 〈비정상회담〉의 기획에 다문화주의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했으며, 출연진이나 언론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다문화 담론 지형 내에 〈비정상회담〉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역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에 답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시청자들의 SNS 댓글들을 분석했다. 이 반응들이 현재적으로건 잠재적으로건 기반하고 있는 담론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담론들은 〈비정상회담〉이 표방하는 다문화주의와는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분석할 것이다. 〈연구문제 2〉는 ‘기미가요 논란’이라는 사건 하나가 다문화주의 담론에 균열을 내고 그 지형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대한 질문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미디어를 통해 다문화 담론 및 다문화주의를 소비하는 수용자들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적 속성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용자들이 다문화 담론들에 대해 어떤 대항 담론을 사용하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2) 연구 대상의 선정

앞서 한국의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에 관련된 담론에 관한 설명과 선행 연구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점 하나는, 사회 구성원 절대 다수가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의 경우 대중매체가 다문화 담론의 이식, 형성과 확산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미디어가 다문화에 관련하여 시청자 및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식에는 여러 층위와 방식들이 존재하나, 연구자들은 그중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보여 주는 형식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적절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정해진 각본에 따라 연기하는 드라마나 문화적 이질성이 최소화되는 버라이어티 쇼에 비해, 자신의 출신 국가와 실명을 내세운 채 문화적 ‘다름’을 자연스럽게 보여 주는 토크쇼가 연구 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생각이었다. 결국 JTBC의 〈비정상회담〉을 연구 사례로 삼게 되었다. 비특

한 포맷이었던 MBC의 〈헬로! 이방인〉의 경우 3% 안팎의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다가 13회 만에 폐지되어, 〈비정상회담〉보다 사회적 담론 구성에 미친 영향이 적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비정상회담〉을 구성하는 핵심 담론인 다문화 및 다문화주의가 특정 국면에서 경쟁 담론이나 담론적 요소들로 인하여 흔들리고 불안정해지는 양상에 주목하며, 이 과정을 수용자들의 목소리에서 풀어내는 방식을 띤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비정상회담〉 제작진이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계정의 기미가요 논란 관련 게시물 및 댓글들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더불어, ‘기미가요’ 삽입 논란을 다루었던 신문 및 방송 기사들도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다문화 담론 혹은 수용자들이 표출하는 대항 담론과의 연결 관계를 프로그램 외적인 맥락에서도 조명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3) 연구 설계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기미가요’ 논란이라는 특정한 국면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는 국면 분석(conjunctual analysis)의 성격¹⁰⁾을 가진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 및 대중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텍스트 형태로 표출한 의견들을 분석하되, 〈비정상회담〉이 민족주의와 같은 다른 담론들과 충돌하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부분적으로 비판적 담론 분석(CDA: Critical Discourse Analysis)의 방식을 차용한다. CDA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미시적 연구보다 거시적인 중요성을 갖는 사회 정치적 담론에 관심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담론 권력이 작용하는 현실적 기제와 그 사회적 기능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집중한다. 권력으로서 담론에 주목하면서, 담론과 권력 간, 그리고 권력의 불평등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van Dijk, 1993; 김영옥·함승경 2014 재인용).

본 연구는 권력으로서의 담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CDA의 지향을 공유하고, 특히 페어클라우가 담론적 사건(discursive events)에 대한 분석 틀로 제시한 CDA의 이론적 논의(Fairclough, 1993)에 동의하지만, 구체적 연구방법론으로서의 CDA가 가진 분석 절차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어서 구체적인 연구 절차를 기술하고자 한다.

10) 굳이 ‘성격’을 띤다고 표현한 것은 그로스버그(Grossberg, 2010)가 강조한 국면분석의 과제들, 이를테면 국면의 이동이나 국면 간의 유사/차이점, 집합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면을 “단지 한 순간의 시간이나 기간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들의 중첩 및 압축, 그리고 다양한 흐름들이나 상황들이 겹쳐진”(Hall, 1988; 조영한 2012에서 재인용) 순간들, 즉 구조적인 변동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보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이를 방법론적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신진욱(2011)이 지적한 것처럼, 담론 분석은 텍스트와 같은 매개물들이 표상하는 사회적 행위 속에 함축된 사회적 관계와 이 과정에서 작동하는 구성물 간의 상호작용과 질서, 그리고 이에 따른 변동을 이해하는 것에 목적을 둔 방법론이다. 담론 분석의 여러 가지 접근법 중 CDA의 경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텍스트가 사회적, 제도적으로 공고하게 구축된 담론들이 맞물려 작동되는 ‘담론적 실천(discursive practice)’의 결과로 드러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Fairclough, 2010). 여기에서 담론과 언어는 사회를 구성하는 비언어적 영역과 일정한 관계를 맺게 되고, 이 맥락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형성한다는 전제가 달린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는 현상을 둘러싼 권력 구조나 관계, 그리고 정체성 등을 표상하는 재현물로 기능한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CDA는 사회적 현상 및 사건, 그리고 이를 다루는 텍스트를 일종의 실천으로 보고, 텍스트들을 둘러싼 행위자 및 공동체의 구조나 관계, 그리고 과정들의 인과성과 상관성에 대해 고찰하는 방식을 말한다(Fairclough, 2010; 홍중윤, 2011).

페어클라우는 특정 담론적 사건은 세 가지 차원을 갖는다고 설명한다(Fairclough, 1993, p. 136). 발화되거나 쓰여진 ‘언어 텍스트’, 텍스트의 생산과 해석을 포함하는 ‘담론적 실천’, 그리고 담론적 실천과 텍스트가 만나서 이루는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¹¹⁾이다. 텍스트와 사회적 실천의 연결은 담론적 실천에 의해 중재되고, 텍스트의 생산과 해석은 사회적 실천의 본질을 일부 형성함과 동시에 그 본질에 의해 형성되기도 한다(Fairclough, 1993, p. 136). 본 연구에서 ‘기미가요 사건’은 하나의 담론적 사건이다. 일차적 분석 대상이 되는 <비정상회담> 시청자들의 게시물들은 ‘언어 텍스트’이지만 이것이 SNS를 통해 생산, 유포되고 특정 반응을 일으키고 또 다른 언어 텍스트의 생산과 해석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는 ‘담론적 실천’이기도 하다. 사회적 실천은 이 담론적 사건이 발생한 맥락 속에서 담론적 실천이 사회적(외부) 구조와 일으키는 상호작용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담론 구조의 변화를 지칭한다. 문제는 텍스트를 벗어난 사회적 실천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페어클라우도 ‘언어 텍스트’에 대한 분석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사회적 실천’을 추론하는 방식을 쓰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외적 구조와의 상호작용을 해석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으로 사건에 대한(언론) 비평과 제도적 대응 방식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11) ‘사회문화적(sociocultural) 실천’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사회적 실천에 대한 분석의 경우, 언어와 사회, 권력과 담론이 만나서 이루어내는 관계가 변증법적이라고 인식하고 이것이 환원되지 않고 내재화되는 과정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Fairclough, 2010; Chouliaraki & Fairclough, 2010; 홍중윤, 2011).

따라서 CDA는 언어 텍스트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시청자의 게시물과 댓글들이 일차적 분석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텍스트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CDA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통일된 가이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언어학 전통의 영향을 받아 문체론적 연구나 비판언어학적 연구가 행해지기도 했고, 사회기호학적 연구도 방법론적 기여를 했다(van Dijk, 1991). 김영옥·함승경(2014)은 툴민(Toulmin)의 논증 모형을 차용하기도 했다. 어떤 ‘도구’를 활용하건,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절차의 답습이 아니라 언어 텍스트의 형식과 의미로부터 담론의 구성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반 디에크는 신문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했기(van Dijk, 1991) 때문에 기사 문장 간의 ‘국지적/전체적 논리’와 ‘함의’가 분석의 핵심이 되었으나, 두어 줄짜리 글을 분석해야 하는 본 연구에서는 같은 분석 도구를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텍스트 분석이 목표하는 바도 수많은 게시물들로부터 담론의 구성 요소를 찾는 것이지만, 그 절차는 전형적인 CDA 연구와 다소 다를 수밖에 없다.

한편 CDA의 세 가지 차원에 덧붙여, 담론을 분석하는 데 있어 일련의 담론 연구자들은 권력과 담론, 담론과 담론, 텍스트 행위 주체들 간의 역학 관계, 그리고 언어적 질서가 사회에서 형성되는 맥락에 대한 고민 등에 있어 담론 분석이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Van Dijk 2008; Wodak & Meyer, 2001; 신진옥, 2011). 이 중 본 연구는 담론 분석 과정에서 드러나는 지배 담론과 대항 담론간의 투쟁, 그리고 담론들의 변화 양상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담론 경쟁이라 지칭할 수 있는데, 김영옥(2012)이 지적했듯 이슈가 되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복수의 담론들이 존재하고, 지배적 담론과 이에 대항하는 담론들이 공론의 장에서 정당성과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담론의 이런 속성을 반영한 개념이 담론 경쟁이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이러한 CDA의 이론적 논의를 수용하고 그 방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기미가요’ 논란이라는 담론적 사건을 둘러싸고 제작진과 시청자, 그리고 여론의 반응이 담론적 질서 위에서 구성되고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언어 텍스트와 담론적 실천을 분석하고 사회적 실천에 대한 그림을 대략적이거나 그리기 위해, 수용자들이 게시물들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드러내는 것뿐 아니라 이 논란을 조명하고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거나 프로그램을 논박하는 언론들의 기사 내용, 제작진들의 의견들, 제도적 조치 등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도한다. 중국적으로는, 다문화 담론의 구성에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한 〈비정상회담〉이 ‘기미가요’ 논란이라는 담론적 사건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기존의 담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절차를 기술하자면, 첫째, 〈비정상회담〉 제작진이 두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에

게재한 사과문에 대한 시청자들의 댓글들을 1차적인 담론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제작진이 2014년 10월 28일 〈비정상회담〉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첫 번째 사과문에 대한 2,669개의 게시글,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담아 재차 사과문을 발표한 10월 31일에 남긴 두 번째 사과문에 대한 1,406개의 게시글들을 합쳐 총 4,075개에 대한 댓글들을 연구의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¹²⁾ 이 게시글들 대부분은 “정말 뻔뻔하네요” 등의 단순한 감상 표현이었으나 이 같은 반응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특히 중점적으로 분석한 대상은 페이스북의 “좋아요” 추천을 많이 받았거나 분량 자체가 비교적 긴 게시글들이었다. 이 중 2,000회 이상의 추천을 받은 글은 〈비정상회담〉의 페이지를 강하게 주장한 원고지 5매가량의 글이었다. 10회 이상의 추천을 받은 게시글은 100개 미만이었다.

텍스트 분석은 명쾌하게 구분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세 가지 단계를 거쳤다. 먼저 게시글들이 비판의 근거나 재료로 무엇을 제시하는지 정리하고 목록화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일 수도 있고 ‘독도 분쟁’일 수도 있지만 ‘독일 사례’나 ‘(올바른) 역사의식’일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목록을 근거로 글쓴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념을 범주화했다. 민족주의, 반일주의, 반(反)세계화주의, 반(反)제국주의, 행동주의 등을 꼽을 수 있다. 물론 그 자체만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다. 게시글에서 묵시화되고 있는 ‘다문화주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인데, 이것이 마지막 단계이다. 즉, 게시글들은 다양한 근거와 이념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이 기존의 다문화 담론에 균열을 일으킨다는 점은 공통적인데, 이 과정을 실제 사례(게시글)와 함께 정리하여 담론 경쟁의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어지는 연구 결과 부분에서는 이 마지막 단계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 제시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게시글들에 대한 텍스트 분석에 덧붙여 담론을 둘러싼 텍스트 외적 요소들도 분석하였다. 생산자, 비평가, 제도의 시각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생산자는 프로그램의 공식 홈페이지 내용과 제작진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통해, 비평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언론들의 반응을 통해, 그리고 제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회의록을 통해 반영하였다.

12) 1차 분석을 했던 2015년 상반기 당시의 기록이다. 논문을 작성 중인 2016년 1월 현재, 이 두 사과문과 4,000개 이상의 댓글들은 모두 〈비정상회담〉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삭제되어 있다. 삭제한 이유와 경위는 알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 분석도 불가능했다.

4. 연구 결과

1) 〈비정상회담〉과 다문화주의

2014년 7월 첫 방송을 시작한 〈비정상회담〉은 다수의 외국인들을 출연시켰을 뿐더러 생산과 소비의 맥락에서 다문화 및 다문화주의 담론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 〈비정상회담〉 제작진이 프로그램 기획 의도에서 밝히고 있듯, 이 프로그램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외국인 청년들이 “명확하고 색깔 있는” 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¹³⁾ 물론 이 의도가 실제로 실현되었는지, 한국 사회의 다문화주의 확산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는지 여부는 쉽게 말할 수 없다. 프로그램 텍스트와 시청자들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통해 답을 얻을 수도 있겠으나, 이는 본 연구의 범주를 벗어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제작진이 최소한 자신들의 관점을 동화주의와 차별화하고 있었으며, 한국 사회의 ‘다문화/다문화주의’ 담론에 영향—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제작진과 출연진들은 여러 차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프로그램이 소재의 참신성, 프로그램의 의의 등 생산의 맥락에서 다문화성이 핵심적인 가치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공동 연출을 맡고 있는 임정아와 김희정은 외국인의 이미지를 소모하기보다, 다문화 가치에 주목하고자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양한 외국인 출연 방송이 나오는 게 결국 새로운 소재를 찾는 과정이에요. 제작진이라면 새로움에 대해 목마름이 다 있으니까요. 〈미녀들의 수다〉가 외국인 패널 프로그램의 시발점이란 의미가 있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할 만한 이야기를 찾은 거예요. 한국에 대한 의견을 넘어 문화 간 토론으로 확장시킨 거죠.”¹⁴⁾

유사한 생각은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관찰된다. 벨기에 출신 출연자인 줄리안 쿼타르트(Julian Quintart)는 같은 인터뷰에서 단순히 체험을 넘어 다문화성을 향유하고자 하는 한국 미디어들의 변화를 〈비정상회담〉과 이 프로그램의 인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3) 〈비정상회담〉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 기획 의도에서 발췌했다.

http://home.jtbc.joins.com/Plan/PlanMean.aspx?prog_id=PR10010316&menu_id=PM10024740

14) 출처: 이선필 · 이정민, “혹셈 · 백셉 · 터키유생, ‘우린 신기한 사람이 아냐’”, 〈오마이뉴스〉 2014. 8. 25.

“과거 한국 방송 프로에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외국인이기만을 원했어요. ‘한국 김치 좋아요!’만 외치는 걸 원했죠. 이젠 아니에요. 대중들 역시 그런 걸 원하지 않고 외국인의 생각을 존중하려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은 많이 봤으니, 이젠 한국 문화를 바라보는 구체적인 생각을 원하죠. 한국은 최근 큰 변화를 맞고 있어요. 휴가도 여가도 즐기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도 궁금해 하는 거 같아요. 방송에 나오는 외국인들이 전문가가 아니지만, 적어도 각자의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살아 왔고, 한국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할 수는 있잖아요. 거기에 공감해 주시면 감사한 거죠.”¹⁵⁾

〈비정상회담〉과 유사한 형식으로 인기를 끌었던 KBS의 〈미녀들의 수다〉는 이중적 인종 잣대를 고착화시킨다거나 여성 섹슈얼리티를 강조한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다문화사회와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을 깨는 데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김인영·박관영·이인희, 2009; 백선기·황우섭, 2009). 그러나 〈미녀들의 수다〉의 출연자들은 한국어에 아주 능숙하지 않았고, 이 서툰 언어가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매력을 주기도 한 반면에 〈비정상회담〉의 출연자들은 유창한 한국어 및 한국 사회와 역사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보여 준다. 이는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주민이란 인식을 주어 시청자들에게 〈미녀들의 수다〉와는 다른 차원의 매력을 제공한다. 이질감으로 인한 부담감을 줄여 주고 좀 더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정덕현(2014)은 〈비정상회담〉 출연자의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강조하면서 동화주의적 관점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들은 한국 문화에 적응된 ‘정주형 외국인’들로 묘사되며, 이들이 향유하는 다문화성은 곧 한국 문화의 다양성을 증대한다는 것이다.¹⁶⁾

〈비정상회담〉이 다문화성을 강조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포맷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예능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토론 포맷을 차용하여 출연진들 간의 극명한 의견 차이와 논쟁들을 그대로 수용자들에게 보여 준다. 이는 김표향(2014)이 설명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을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결국 출연진들이 각기 다른 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의 포맷은

15) 출처: 이선필·이정민, “혹샘·백샘·터키유생, ‘우린 신기한 사람이 아냐’”. 〈오마이뉴스〉 2014. 8. 25.

16) 〈비정상회담〉과 〈미녀들의 수다〉의 가치적 차이는 출연 외국인들의 언어적 숙련도나 정주형 여부 외에도 이들의 성별에서도 찾을 수 있다. 특히 후자의 여성 출연자들이 성적 대상으로 재현된다는 논란이 있었다는 점과 최근의 주요 오락 프로그램 패널을 남성들이 점령했다는 불만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젠더’는 이 두 프로그램을 비교하는 핵심적 기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인종과 문화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부득이하게 이 쟁점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였다.

한국 사회와 문화를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들과 가치들이 공존하고 존중 받는 구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한국 안의’ 다문화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포 함한 다문화성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최소한 형식 면에서는 수평적 다양성을 전제한 다문화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성을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상의 핵심으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 외적으로도 이를 홍보의 간판으로 삼았다. 〈비정상회담〉 출연진들이 모델로 등장한 2015년 자선 달력을 제작,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모두 다문화 가정에 후원하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첫 방송 이후 〈비정상회담〉의 시청률이 낚은 코리아 조사 결과 6%까지 상승하면서 각 방송사들에서 추석 특집이나 가을 개편을 맞이하여 외국인들의 한국 체험기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잇달아 편성하면서 다문화적 시선들을 담아낸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요컨대 추석을 맞이하여 KBS는 〈리얼 한국 체험기-이방인〉을 통해 케냐와 이탈리아, 독일 국적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방송했고, MBC는 게스트하우스에 모인 외국인 남녀 11명의 한국 생활기를 담은 〈헬로! 이방인〉을 제작, 방영했다. 〈비정상회담〉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외국인들의 생활을 담아 낸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시청자들에게 선보이는 것은 분명 〈비정상회담〉이 드러낸 다문화성이 어느 정도 호응을 얻은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강은영, 2014).

반면, 다문화 담론과 이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비정상회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가령, 프로그램 제작 발표회 당시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전현무가 ‘시청률 3% 공약을 내세우며 고정 패널인 새무엘 오키에레(Samuel Okyere)¹⁷⁾처럼 흑인 분장을 하겠다고 한 것은 비(非)백인계 외국인들을 열등하게 바라보는 관점과 동정적인 시선에서 나온 희화화 발언이라는 비판(배국남, 2014)을 받았다. 한국 미디어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왜곡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의 일부인데, 이는 외국인을 출연시킨 한국의 예능오락 프로그램들 대부분이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융합보다는 동화주의적 시선을 갖는다는 점¹⁸⁾과 비백인계 외국인들을 시혜적 시선과 관리적 측면에서 다룬다는 점의 연장선상에 있다.

제작진과 출연진의 언론 인터뷰와 프로그램에 대한 언론들의 비평, 그리고 이를 소화

17) 샘 오취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가나 출신의 흑인이다.

18) MBC의 〈일밤: 진짜 사나이〉에서는 호주 출신 방송인인 새무엘 해밍턴(Samuel Hamington)과 ‘슈퍼주니어-M’의 중국계 캐나다인 헨리 라우(Henry Lau)가 출연하여 한국의 병영 생활을 체험하면서 적응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JTBC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에서는 강남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나메카와 야스오(滑川 康男)가 고등학교 생활을 겪으면서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는 장면들을 방송한다. 다문화적 시선들이 다양하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의 주류 문화에 동화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접근법이다.

하고 응용하는 다른 미디어들의 반응 등을 볼 때, 다문화와 다문화주의가 <비정상회담>의 생산과 소비를 관통하는 중심 담론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예능오락 프로그램으로서 비교적 높은 대중적 인기를 누렸고, 유사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영을 자극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논의의 지형을 확장시키는 데에 기여했다는 추론도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고질적인 왜곡 재현 문제를 반복하기도 했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다문화주의라는 긍정적 가치를 널리 전파했다’라는 피상적 이해보다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주의 담론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해석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2) 반일 정서의 개입과 다문화주의 담론의 균열

앞서 이미 소개했듯, <비정상회담> 17회에서는 새로운 일본인 출연진의 등장을 알리기 위해 기미가요를 사용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제작진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10월 28일 첫 번째 사과문을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및 트위터 계정에 게시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비정상회담>은 각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프로그램의 콘셉트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징하는 음원을 종종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10월 27일 방송된 <비정상회담> 17회에서 ‘일일 비정상’ 출연자의 등장 시에 사용한 배경 음원은 그 선택이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각국 젊은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다양성을 알아가고자 했던 기획 의도에 따른 것이기는 했지만, 각 나라의 상징에 대한 국민 정서와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합니다. 제작진의 잘못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과문에도 불구하고 ‘기미가요’를 삽입한 것에 대한 여론과 언론의 비판들이 고조되면서 사흘 후인 10월 31일, 제작진은 두 번째 사과문을 올리면서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담았고, 이는 다음과 같다.

“JTBC는 <비정상회담> 1회(7월 7일 방송)와 17회(10월 27일 방송)에 일본 대표 등장 시기 기미가요를 사용해 국민 정서를 해치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 드렸습니다. 깊이 반성하며 진심을 다해 사과드립니다. JTBC는 금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비정상회담>의 책임 프로듀서 겸 연출자를 보직 해임 및 경질하기로 했습니다. 기미가요를 배경 음악으로 채택한 프리랜서 음악감독에 대해서도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업무 계약

파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JTBC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크나큰 잘못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방송 콘텐츠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란 약속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과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국가(國歌)는 국가(國家)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기능하고, 〈비정상회담〉에서도 출연진을 소개하면서 소속된 국가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삽입되었다. 그러나 일왕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의 경우, 일제의 식민 통치 시절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로 암송해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 한국의 국민 정서, 즉 ‘반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¹⁹⁾

여기서 〈비정상회담〉의 핵심 가치가 다문화주의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국가를 들려주고자 했던 애초의 의도 역시 이 가치에서 비롯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반일 정서라는 보다 강력하고 예리한 변수가 개입되자 다문화 담론은 다양한 측면에서 상처를 입기 시작한다. 그 첫 번째 단면이 (다문화 담론의 이형동질 담론이라 할 수 있는) ‘세계화’ 담론에 대한 공격이다. 무조건 세계화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문화의 다양성을 외치다가 정작 본질적인 ‘우리 문화’를 경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입니다. 제작진님들 ... 글로벌, 세계화 씨부리다 나라도 팔아먹겠어요. ... 한심하고 부끄러운 제작진 면면들.”

“그게 존중받을 ‘문화’라고 여겨지던가요? 종종 타국의 이해할 수 없는 풍습이 논란거리로 떠오르면 저런 것은 상대적이라고 인정해 줄 수 없는 야만적인 행태니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기미가요도 그런 차원에서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19) 기미가요는 “군주의 치세는 천 대, 팔천 대에 작은 조약돌이 큰 바위가 되어 이끼가 낄 때까지” 계속된다는 내용의 가사를 포함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 천황에 대한 무한한 충성을 강조하는 이 곡은 독일인 작곡가인 프란츠 에케르트(Franz Eckert)가 1880년에 작곡한 멜로디에 헤이안(平安) 시대의 와카(和歌)에서 따온 가사를 입혀 만들어졌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제정 치하의 일본 제국이 붕괴되고 보통 주권을 규정한 일본국으로 체제가 바뀌면서 국가(國歌)로서의 기미가요도 법적 근거를 상실하였으나, 대체 국가가 지정되지 않아 오랜 기간 동안 비공식 국가의 입장에서 일본을 대표해 왔다. 일제 식민 통치를 겪었던 여러 국가들의 반대와 군국주의로의 회귀에 대한 국내의 일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1999년 ‘국가와 국기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일장기와 함께 기미가요를 공식 국가로 지정했다.

“각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프로그램이. 자국 역사는 잊고 남의 국가만 궁금해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정작 우리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도 없는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다양성을 알아 가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코미디 ㅋㅋ 이래서 ‘비정상회담은 예능입니다’라고 강조한 거구나 ㅋㅋ”

“비정상회담은 제작진들까지 다국적으로 돼 있나요?”

위 댓글 사례들은 많은 시청자들이 ‘우리나라’, ‘우리 역사’, ‘우리 국민 정서’ 등을 ‘세계화’보다 분명히 높은 위계에 설정함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 담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즉, ‘반(反)세계화’ 담론과 ‘역사/민족 강조’의 담론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비정상회담 제작진들은 대체 어느 나라 분들이시기에 대한민국에서 프로그램 만들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 정서를 파악 못하신 건지 진정 궁금합니다.”

“우리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외국인 데려다가 프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참 코미디네요. 정신줄 챙기세요, 제발. 국민 정서를 알지 못했다니, 이 프로 제작진들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외노자인가? 거기 제작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나?? 소름 끼치네요.”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역사인식을 저버리지 마세요. 같은 한국인으로서 쪽팔리고 수치스러워요.”

세계화에 관련된 대부분의 댓글들은 일반론의 논리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세계화도 좋지만 (가치의 위계에서 더 위에 있는) 역사와 민족을 더 강조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시기에서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반일’이 주제로 등장할 경우에는 우리의 ‘특수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된다.

“프로그램 폐지라는 주장을 왜 오바라고 말하는 건지? ... 위안부 사과도 제대로 못 받아 내고 있는데?”

“[이 상황을 유아무야 넘긴다면, 1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무지한 일빠와 친일파 혈통 등에 의해 제2의 식민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드는군요.]”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감이 안 오시나요? 일제시대가 치욕의 역사, 우리 선조들의 피의 역사라는 간단한 사실만 알고 있어도 이 문제에 분노할 수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방송을 계속한다고요? 이걸 결국 우린 일본 식민지배에 문제를 안 느낀다고 간접적으로 비춰지는 건데?]”

하나 흥미로운 점은, 한일 관계가 매우 특수하고 중요한 논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반(反)제국주의나 평화우호주의 등의 보편적 논리를 제시하곤 한다는 것이다.

“폐지하세요. 이스라엘 방송국에서 나치 노래 나오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런 물렁물렁한 사과문이 다예요? 왜? 독일 대표 나올 때 나치 군가도 틀어 보시지? 다들 게 뭐니까?”

“세계 청년들의 평화와 안전을 추구한다는데 군국주의를 어떻게 존중하나요?”

“현대 프랑스 방송에서 독일인 패널을 소개하며 배경음으로 나치당가가 나온 격입니다. 프랑스 사람들, 음향 담당자만 해고하라고 할까요? 방송국 문 닫아도 할 말 없는 겁니다.”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은 보편성을 담지한다.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다문화주의’의 의미가 바뀌지는 않는다. 그런데 반일 정서로 대변되는 이 상황의 민족 중심주의는 특수성을 논리적 근거로 삼는다. 한일 관계에서의 민족 중심주의와 독불 관계에서의 민족 중심주의는 그 내용과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위 댓글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 특수성을 보편화하면서 담론의 힘을 배가하는 전략이 적용되곤 한다. 강진구(2014)는 반(反)다문화주의 진영이 ‘지적 사대주의의 아이러니’를 보인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즉, ‘서구 헤게모니’나 ‘문화 제국주의’ 논리를 동원하여 서구 태생의 다문화주의를 비판하고 한국의 ‘특수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반(反)다문화 담론의 대표적인 근거로 이른바 유럽의 ‘다문화 실패론’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미가요에 대한 반대를 민족적 특수성이 아니라 제국주의나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보편적 가치의 발현으로 해석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민족주의란 개념 자체가 일제 강점기에 침략자들인 일본인들에 대한 반감에서 출발했다는 주장(윤대식, 2013; 천경효, 2015)은 유효하며, 오늘날 한국 사회의 민족주의를 추동했던 기반을 조선 후기부터 대한제국기를 걸쳐 시작된 일본의 침략에 대한 대응에서 찾은 연구(김용직, 1994) 또한 한국 민족주의의 특수성을 드러낸다. 즉, 반일(反日)이 한국의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성질이라는 점은 분명하며, 반대의 대상은 단순히 제국주의로서의 일본 세력이 아닌 일본 그 자체로 확대되었다. 한국 민족주의가 성립되고 발전된 토대를 감안한다면, ‘기미가요’에 대한 반감은 제국주의 일반에 대한 보편적인 반감이 아니라 한국의 민족주의가 태생적으로 가지는 고유의 특성인 ‘반일’이란 특성이 강하게 개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문화/세계화’와 ‘민족/반일’의 대립 구도에서 다소 벗어난 댓글들도 상당수 있었다. 댓글 다는 시청자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이 그 예이다. “랜선에서만 애국심이 폭발하면서 무조건 폐지만 외치는 것도 보기 좋지 않다”든지 “정작 중요한 민생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치가 떨린다”라는 주장인데, 이는 (글쓴이의 시각에서) ‘진정한’ 애국/반일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다문화 담론을 옹호하고 그 균열을 막는 노력과는 무관하다는 의미이다.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논리는 ‘즐거움’을 강조하는 이들에 대한 반박이다. 예능 프로그램으로서 〈비정상회담〉은 당연히 오락성을 가져야 하고, 이 오락성을 즐기는 시청자들이 많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좋아하는 외국인 오빠야들 보자고 나라를 팔아먹어도 좋으신가 보네요?”라는 비판은 민족/반일의 담론에게 다문화주의는 물론 개인적 즐거움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한 발 더 나아가 외국(인)의 타자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패널들 걱정하는 사람들은 말이 걱정이지 그냥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못 본다는 아쉬움에 폐지 반대를 외치는 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우리나라 교포들도 아니고 그냥 남인 외국인인데 그들의 사정까지 봐줘야 될 이유도 없거니와 ... 패널들이 무슨 죄냐고 감성팔이 하는 사람들은 사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댓글은 다문화-타자화-대중문화의 고리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식을 전형적인 방식으로 드러낸다. ‘교포’는 ‘우리’이고 ‘외국인’은 ‘남’이라는 논리, ‘우리(의 역사와 자긍심)’을 위해 ‘즐거움’을 희생해야 마땅하다는 논리, 그리고 이를 위해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마땅히

폐지될 수 있다는 소비자 의식까지 확인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보이던 다문화(주의) 담론은 민족(중심)주의, 반일 감정, (이문화에 대한) 타자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가해지는 힘집에 의해 순간적인 균열을 겪는다.

3) 다문화주의 담론의 변화/취약성

〈비정상회담〉의 기획 의도가 지향했던 다문화주의는 ‘기미가요 논란’이라는 돌발 변수에 의해 거센 도전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그 자체를 공격하는 시청자들은 많지 않았다. 이는 (긍정적 함의의) 다문화주의를 비판할 경우 (부정적 함의의) 인종주의라는 낙인이 찍힐까 봐 침묵한다는 김영명(2013)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다문화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의 글이라고 스스로 믿으며 남긴 댓글들이 축적되어 결과적으로는 다문화 담론과 경쟁하고 다문화 담론에 상처를 입히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해석하는 편이 더 타당하다. 세계화에 대한 공격, 역사/민족의 강조, 한일 관계라는 특수성의 (반제국주의, 반군국주의, 평화주의 등으로의) 보편화, 즐거움의 의의 축소 등 다양한 논리가 동원되면서 반(反)다문화 담론은 그 형태를 드러낸다.

‘기미가요 논란’이 격화되고 비판이 거세지면서 상당수의 시청자들은 강력한 비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프로그램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곧이어 광고주들과 제작 후원 기업들은 광고 및 협찬을 중단하기 시작했다(아시아경제, 2014). 당시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스킨푸드는 “〈비정상회담〉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면서 “JTBC에 오늘 이후 〈비정상회담〉 방영 시간대에 방영될 모든 광고에 대해 진행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고, 한국 야쿠르트 측은 “제작 지원이나 협찬을 하지 않고 있는데 광고 노출이 돼 그렇게 오해를 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비정상회담〉에 대한 협찬이나 광고 노출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제작 협찬사인 카카오그룹과 LG그룹 역시 “비정상회담 제작 지원은 중단됐다. 방송 프로그램 종료 시 보여지는 제작 지원 배너 또한 노출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유원정, 2014).

민족적 특수성이 다문화 담론을 압도하는 이 관점은 2014년 12월 11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22차 전체회의에서도 확인된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법적 제재인 ‘경고’를 부과한 위원회는 그 근거로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한 국민의 역사인식과 정서를 배려하지 않고 일본의 기미가요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여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시켰다”는 점을 제시했는데, 이는 위원회의 징계 사유에서도 드러나듯 민족주의적 정서가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²⁰⁾ 이러한 민족주의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보면 장낙인 상임위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국가’로서의 보편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제국주의의 상징’이라는 특수성

만이 논란을 빚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일본 국가라는 사실은 빠지고 애초에 기미가요의 방송 여부를 가지고만 문제가 제기돼 국민 정서에 불을 질렀다. 다른 나라의 국가는 방송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본 국가만 문제를 삼으면 한일 간의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인지 감안해 봐야 한다.” (2014년 1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22차 전체회의 중 장낙인 위원 발언)

이러한 관점은 이 문제를 보도하는 언론들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언론들은 ‘충격’, ‘격분’ 등의 표현을 써 가면서 <비정상회담>의 ‘기미가요’ 논란을 비판적으로 조명했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한 노동은 교수는 스포츠와 같은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국가로서의 기미가요의 연주에 대해서는 국제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비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인정해 준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한 칼럼리스트는 주입식 역사 교육의 폐해라고 주장하며 제작진을 비난했다.

“우리가 왜 욱일승천기에 분노하겠는가. 승부를 내야 할 상대가 일본이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철칙은 어디서 왔겠는가. 그리고 타쿠야는 <비정상회담>에서 왜 그토록 시종일관 예의바르고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겠는가. 즉, ‘비정상회담’ 제작진은 타구야 만큼도 못했던 것이다.”(윤지혜, 2014)

이렇듯 방송 프로그램의 심의 과정에 개입되는 민족주의적 주장들은 방송이라는 매체가 기본적으로 문화 및 민족 정체성에서 보호주의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몰리와 로빈스(Morley & Robins, 1995)의 주장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희은(2009)은 민족주의와 다문화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확실한 국가 정체성과 배치된다고 판단될 경우 다문화 담론이나 그 흥미 요소와 무관하게 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한일 관계라는 특수성은 대중문화의 수용에서 특수하게 여겨지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는 데, 김현미(2003)가 지적한 것처럼 소비자들의 주체적인 선택적 수용에서 일본 콘텐츠가

20) 현행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 3항에서는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비정상회담>의 ‘기미가요’ 논란이 제기되기 이전이었던 2013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족적 자긍심을 훼손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자연합회 등 유관 단체들의 ‘표적 과잉 심의’, ‘정치 심의’의 비판을 받아들여 이를 철회했다.

전파된다고 할지라도 박진한(2014)의 주장대로 여전히 다수의 미디어는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일본을 바라보고 있으며, 반일 감정은 여전히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상징 자원으로 활용된다. 이를 감안할 때, 다문화성이 질게 반영된 〈비정상회담〉이 여론의 호평을 받았다고 해도, 반일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규정하는 대항 담론 요소와 맞물렸을 때는 급격하게 약화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반(反)다문화 담론의 구성 방식을 연구한 강진구(2012; 2014)에 의하면, 반(反)다문화 담론은 인신공격을 통한 타자 배제, 희생양 만들기, 그리고 공포심 유발 등의 방식으로 다문화 담론을 공격한다. 국제결혼이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논리, 다문화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주장, 발생 가능한 혼란들을 극단화시켜 공포감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그 실제 사례들이다. 물론 이 과정이 항상 의도를 가진 특정 집단에 의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 다문화주의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비록 다문화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못하더라도 다양한 언설을 통해 대항 담론들을 만들고 경쟁시킴으로써 전체적인 담론 구조에 변화가 오는 것이다. 〈비정상회담〉의 ‘기미가요 논란’을 둘러싼 담론 경쟁도 같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댓글을 쓴 시청자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미가요 논란’은 반일 민족주의가 다문화주의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나타났고, 이는 사회적 의제가 되면서 광고 협찬의 중단, 언론의 전방위적 비판, 공적 심의제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동조 확인으로 이어졌다. 다문화주의는 뿌리를 굳건하게 내린 지배적 담론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사건은 다문화주의가 언제라도 쉽게 공격용 허수아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 주었다. 한국에서의 다문화 담론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기보다, ‘본질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5. 결론 및 논의

다문화주의가 ‘정치적 올바름’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 다문화주의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빠르게 사회의 중심 담론으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논리는 ‘다문화주의’의 반대 개념을 ‘인종주의’로 명명한 것이었다. 의미의 싸움에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담론이 주도적 담론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과연 한국 사회의 다문화 담론은 그러면 공고하게 뿌리 내린 주도적 담론이라 말할 수 있을까? 〈비정상회담〉이 이야기한 ‘기미가요’ 논란이라는 하나의

담론적 사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적일 수 없음을 시사한다.

비판적 담론 분석을 활용하여 이 담론적 사건을 분석하였다. 바꿔 말하면, 최근 한국의 미디어들에 의해 수용 양상이 확대되고 대중의 호응을 얻고 있는 다문화적 요소들과 다문화주의적 시선들이 경쟁적인 담론들과 맞닿았을 때 변화하는 양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비정상회담> 17회에서 배경음악으로 삽입된 기미가요가 불러일으킨 논란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 일종의 사례 연구지만, 이 과정을 통해 담론 간의 경쟁, 지배적 담론의 균열, 그리고 전체 담론 구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인기 예능오락 프로그램이 특정 사건으로 인해 수용자들의 비난을 받는 국면을 들여다봄으로써 다문화 담론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린 정도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기미가요는 한국 사회에서 ‘침략자들의 상징’이란 기호로도 활용되지만, 동시에 한국이 50년 전 외교 관계를 재수립한 일본의 공식 국가라는 기호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상대 문화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다면 전자가 후자를 쉽게 압도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가 그만큼 공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다문화주의는 주류 담론을 생산하는 대중, 언론, 정부의 취사적 선택에 의해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여지며, 그나마 돌발적 상황에 의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취약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는 다문화 담론의 착근과 확대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다문화 현상을 오락적 가치라는 기준으로 평가하고 활용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 대중들은 다문화주의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가치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강진구, 2014) 언제든지 다른 논리를 동원하여 다문화주의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비정상회담>의 기획 의도나 구성 방식을 고려할 때, 이 프로그램의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적 시선을 최소화하면서 문화적 다원주의로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혹은 기획 의도가 만족스러운 정도로 성취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다.²¹⁾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한국 사회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야기꺼리’를 던져주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기미가요’ 논란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시청자 게시글들과 언론 보도, 그리고 제도적 조치들이 거의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수준의 반일 담론을 구성함으로써 다문화주의의 확대 여지가 일시적으로나마 봉쇄되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수용자들은 다문화가 주는 ‘다름’이라는 흥미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른 담론들과 경쟁하고 갈등할 때 선택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나 역사 등 국가 정체성과 같은 주류

21) 물론 이 가정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공동체의 문화적 요소들과 부딪혔을 때에는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선호를 상당 부분 포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시적이고 명백한 것은 아니다. 개별적인 수용자 입장에서는 민족을 중시하고 반일을 강조한다고 해서 다문화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족주의가 다문화주의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는 경쟁적 이념이라고 생각한다면, 둘은 전혀 다른 차원이거나 심지어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민족주의에 대한 결정적 집착이 결과적으로 다문화 담론에 균열을 가져왔다는 점이 중요하다. 균열의 원인이 되는 경쟁 담론들은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특히 반일 민족주의라는 매우 예민한 정서 변수가 개입할 때 그 파괴력은 더 크다. 다문화주의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이념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을지는 몰라도, 정작 그 믿음은 사회 내에 굳건하지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특정 계기에 의해 심하게 흔들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계기는 민족(중심)주의나 반일 감정이었으나, 아마도 다른 많은 잠재적 계기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 먼저, 특정한 국면에서 하나의 대항 담론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담론 분석을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례 연구 이상의 보편적 설명력이 약한 한계를 갖는다. 특히 한일 관계나 반일 감정은 다른 사례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특수성이 크기 때문에 ‘담론 간의 경쟁’으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단, 한국 사회의 담론을 설명하는 데에는 여전히 유효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주요 담론, 이를테면 성평등 담론이나 탈특권 담론 등의 안정성이나 균열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은 흥미로운 후속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방법론적 미진함을 들 수 있다. CDA의 부분적 차용을 선언하긴 했으나, 정치한 언어 분석이나 기호학적 분석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타당성이 의심받을 수도 있다. 후속 연구에서 엄밀한 도구적 절차와 분석을 활용한다면 더 설득력 있는 결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실천’에 대한 분석이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텍스트 외적인 담론 요소에 대한 분석을 보조적으로 하였으나, 향후에는 후자에 더 무게를 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젠더, 자본, 인종, 교육, 지역 등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담론들과의 상관관계를 조망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진구 (2012). 한국사회의 반다문화 담론 고찰: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2호, 5-34.
- 강진구 (2014). 한국사회의 반다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17호, 7-37.
- 강은영 (2014. 9. 11.). 베끼기에 재탕 삼탕... 낮 뜨거운 가을 개편 시험 무대. <한국일보>, 23면.
- 권금상 (2013). 대중매체가 생산하는 '이주여성' 재현의 사회적 의미: 결혼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 TV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6권 2호, 39-81.
- 김영명 (2013). 한국의 다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5집 1호, 143-174.
- 김영욱 (2012). 담론 경쟁으로서 PR커뮤니케이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이론의 방향성 설정. <커뮤니케이션이론>, 8권 1호, 352-385.
- 김영욱·함승경 (2014). 금연과 흡연의 담론 경쟁: 비판적 담론 분석(CDA)의 적용. <한국언론학보>, 58권 5호, 333-61.
- 김용직 (1994). 한국 민족주의의 기원: 정치운동과 공공영역. <사회비평>, 11권, 353-384.
- 김인영·박관영·이인희 (2009). TV 프로그램에 나타난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특수성에 관한 미디어 담론: KBS <러브 인 아시아>와 <미녀들의 수다>를 중심으로. <OUGHTOPIA: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24권 2호, 69-95.
- 김표향 (2014. 7. 31.). '비정상회담', 첫 방송부터 대박 터진 요인은?. <스포츠조선>.
- 김현미 (2003). 일본대중문화의 소비와 '팬덤(Fandom)'의 형성. <한국문화인류학>, 36권 1호, 149-186.
- 김현미 (2014).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기>. 파주: 들베개.
-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42집 2호, 36-71.
- 마정미 (2010). TV 광고 텍스트에 나타난 다문화 사회에 대한 고찰: 공익광고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12권 4호, 223-258.
- 박진한 (2014). 2000년대 이후 일본문화의 수용과 반일의식에 관한 양태 분석. <아세아연구>, 57권 2호, 258-287.
- 배국남 (2014. 7. 23.). 전현무, 샘 오취리 분장하겠다고!. <배국남닷컴>
- 백선기·황우섭 (2009). 다문화성 TV 방송 프로그램의 패러독스: KBS-TV의 <미녀들의 수다>에 내재된 '다문화성'과 '섹슈얼리티'의 혼재성. <한국언론정보학보>, 45호, 255-295.
- 서병훈 (2011). 문화와 국경. <다문화사회연구>, 4권 1호, 85-101.
- 신진욱 (2011).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경제와 사회>, 89권, 10-45.
- 심훈 (2013). 다문화 휴먼 다큐멘터리에 관한 비판적 담론 분석: KBS <인간극장>에 등장하는 결혼이주민의 언술행위 중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7권 4호, 131-167.
-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14. 10. 30.). "비정상회담 광고협찬 중단하겠다" ... '기미가요 논란'에

- 기업마저 등 돌려. <아시아경제>.
- 유원정 (2014. 10. 29). 기미가요 탓? '비정상회담' 광고·협찬사들 중단 선언. <CBS 노컷뉴스>.
- 윤대식 (2013). 한국 민족주의의 쟁점: 민족주의를 바라보는 양가적 시선에 대한 자존의 변명. <정신 문화연구>, 36권 2호, 331-362.
- 윤인진 (2014). 한국적 다문화주의 모델을 찾아. 윤인진·황정미 (편), <한국 다문화주의의 성찰과 전망> (11-32쪽).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윤재희·유향선 (2009).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영·유아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편), <다문화의 이해: 주제와 타자의 존재방식과 재현양상> (149-173쪽). 서울: 경진.
- 윤지혜 (2014. 10. 29.) '비정상회담'의 추락, 올바른 역사인식의 부재가 가져온 비극. <아시아경제>
- 이상길·안지현 (2007). 다문화주의와 미디어/문화연구: 국내 연구동향의 검토와 새로운 전망의 모색.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58-83.
- 이선필·이정민 (2014. 8. 25). 흑샘·백샘·터키유생 "우린 신기한 사람이 아냐". <오마이뉴스>.
- 이용승 (2011). 한국 다문화주의의 담론 지형에 관한 소고. <인문과학연구>, 16호, 134-157.
- 이은비·강진숙 (2013). 차이와 소수성을 위한 이주노동자 미디어교육에 대한 질적 연구: MWTV 이주노동자 미디어교육 이수자 및 학습자와의 질적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권 6호, 441-468.
- 이인희·황경아 (2013). 다문화 관련 미디어 보도 프레임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다문화사회연구>, 6권 2호, 83-108.
- 이현정·안재용·이상우 (2013). 다문화 콘텐츠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언론학보>, 57권 3호, 34-57.
- 임도경·김창숙 (2011). 대학생들의 다문화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 이미지, 한국인 인성조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9권 1호, 5-34.
- 장세룡 (2007). 다문화주의적 한국사회를 위한 전망. <인문연구>, 53호, 307~348.
- 정덕현 (2014. 8. 21). 외국 연예인에게 '된장' 냄새가 난다 : 언저리 머무르다 중심인물로... 한국 문화 이해 높아져. <시사저널>.
- 정의철 (2011). 다문화사회와 이주민 미디어: <이주민방송>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1권 4호, 489-526.
- 정의철 (2013). 다문화사회 소통과 미디어 정책: 정책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7권 5호, 244-284.
- 정의철 (2014). 지역방송의 다문화프로그램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연구: 방송관계자 및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8권 2호, 191-218.
- 정의철·이창호 (2007). 혼혈인에 대한 미디어 보도 분석: 하인스 워드의 성공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권 5호, 84-110.
- 조영한 (2012).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읽기: "국면적인 경제 읽기"를 제안하며. <커뮤니케이션이

- 론), 8권 2호, 22-64.
- 채영길 (2013). 다문화사회와 상호주관적 소통권: 미디어 중심에서 커뮤니티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이론>, 9권 4호, 136-175.
- 천경효 (2015). 단일민족과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북한 바라보기: 고정된 역사 속에서의 타자화 현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3권 1호, 274-299.
- 한윤형 (2014. 12. 5). '이자스민'과 '에네스 카야' 논란으로 보는 우리의 배타성: '단일민족 국가'의 인종주의에 대한 성찰도 필요. <미디어스>.
- 홍종배·유승관 (2014). 다문화 소외계층의 미디어 이용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23호, 7-38.
- 홍종윤 (2011). 방송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연구: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에 관한 정책담론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5권 3호, 349-394.
- 홍지아 (2010). 젠더적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언론의 다문화 담론: 경향, 동야, 조선, 한겨레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0권 4호, 644-678.
- 홍지아·김훈순 (2010). 다인종 가정 재현을 통해 본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 TV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권 5호, 544-583.
- Allievi, S. (2010). Immigration and Cultural Pluralism in Italy: Multiculturalism as a Missing Model. *Italian Culture*, 28(2), 85-103.
- Appadurai, A. (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MN: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ack, L., Shukra, K., & Solomos, J. (2002) New Labour's White Heart: Politics, Multiculturalism and the Return of Assimilation. *Political Quarterly*, 73(4), 445-454.
- Barker, C. (2004). *The SAGE Dictionary of Cultural Studies*. 이경숙 정영희 (역) (2009). <문화연구사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Bauman, Z. (2011). *Culture in a Liquid Modern World*. 윤태준 (역) (2013) <유행의 시대: 유동하는 현대 사회의 문화>. 파주: 오월의 봄.
- Chouliaraki, L., & Fairclough, N. (2010)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Organizational Studies: Towards an Integrationist Methodology.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47(6), 1213-1218.
- Fairclough, N. (2010).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Critical Study of Language* (2nd ed.). Abingdon, UK: Routledge.
- Fairclough, N. (1993).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the Marketization of Public Discourse: the Universities. *Discourse & Society*, 4(2), 133-168.
- Grossberg, L. (2010). *Cultural Studies in the Future Tense*.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Kim, S. (2012). Racism in the global era: Analysis of Korean media discourse around migrants, 1990~2009. *Discourse & Society*, 23(6), 657-678.
- Koopmans, R., Statham, P., Guigni, M., & Passy, F. (2010) *Contested Citizenship: Immigration and Cultural Diversity in Europe*. Minneapolis, MI: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Kymlicka, W.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Martiniello, M. (1997). *Sortir Des Ghettos Culturels*. 윤진 (역) (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서울: 한울.

- Morley, D., & Robins, K. (1995). *Spaces of Identity: Global Media, Electronic Landscapes and Cultural Boundaries*. 마동훈·남궁협 (역) (1999). <방송의 세계화와 문화정체성>. 서울: 한울.
- Park, G. (2014). Foreigners or multicultural citizens? Press media's construction of immigrants in South Korea. *Ethnic and Racial Studies*, 37(9), 1565-1586
- Prey, R. (2011). Different Takes: Migrant World Television and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Global Media Journal*, 4(1), 109-125.
- Rattansi, A. (2011). *Multicultural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Dijk, T. A. (2008). *Discourse and Power*. Hampshire, NY : Palgrave Macmillan.
- van Dijk, T. A. (1991).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news as discourse. in W. J. Nicholas & B. J. Klaus (eds), *A Handbook of Qualitative Methodologies for Mass Communication Research*. New York & London: Routledge.
- van Dijk, T. A. (1983). Discourse analysis: It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to the structure of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33(3), 20-43.
- Wodak, R., & Meyer, M. (2001). Critical Discourse Analysis: History, Agenda, Theory and Methodology. In R. Wodak, & M. Meyer, (Eds.), *Method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pp. 1-33). London, UK: Sage.

투고일자: 2016. 1. 31 게재확정일자: 2016. 5. 20 최종수정일자: 2016. 5. 22

Study on Vulnerability of Multi-Culturalism Discourses in Korea

A Case Study of JTBC's Entertainment Show <Non-Summit>

Taeyoung Kim

MA student, Yonsei University

Tae-Jin Yoon

Associate Professor, Yonsei University

Korean mass media has represented foreigners in their documentaries, entertainment shows, situational comedies, and dramas for long time, while the representations created plenty of controversies. Alleged West-oriented racism found from various television programs may be one of them. Recently, however, more Korean television shows began to incorporate the ideas of multi-culturalism.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plore how television audiences interpret multi-culturalism reflected in the media. More specifically, this is a case study of JTBC's <Non-Summit>, a show featuring foreigners debating on various topics regarding Korean culture. Particularly, it focuses on disputes over the producers' decision to play 'Kimigayo' (the national anthem of Japan, which is also considered as a symbol of Japanese militaristic past) when <Non-Summit> introduced a new Japanese panel. Critical discourse analysis was adopted as the main research method, and researchers found that audiences draw certain guidelines in accepting multi-cultural aspects. If and when these aspects overstep the line, they tend to abandon it without hesitance. In the case of 'Kimigayo,' it was ethno-centrism and/or anti-Japanes sentiments which made multi-culturalism much weaker. It does not mean that multi-culturalism was replaced—or defeated—by nationalism, but show the 'vulnerability' of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ism is not as concretely rooted in Korean society as many people have claimed or hoped. The research has its own limitations as a case study, but it is hoped to stimulate other researchers to keep their eyes on media and multi-culturalism in Korea.

KEYWORDS <Non-Summit>, Multiculturalism, CDA(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ti-Japanese sentiment, Nationalism.